#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6)

## 鴻山大圓禪師警策(위산대원선사경책) ⑥

心空境寂 只爲久滯不通
심공경적 지위구체불통
熟覽斯文 時時警策 强作主宰 莫徇人情
숙람사문 시시경책 강작주재 막순인정
業果所牽 誠難逃避
업과소견 성난도피

마음자리는 본래 텅비어 경계가 있지 않건만 단지 번뇌망상이 오래도록 앞을 막아 통하지 않는 것이니
이 글을 익히 살펴보고 때때로 경책하여 주장자를 굳게 세워서 (깊은 신심과 정진하는 마음 다 잡아서)세간 도리에 끄달리지 말지어다.
업의 과보가 이끄는 힘은 참으로 도피하기 어렵도다.

聲和響順 形直影端
성화향순 형직영단
因果歷然 豈無憂懼
인과역연 기무우구
故 經云 假使百千劫 所作業 不無
고 경운 가사백천겁 소작업 불무
因緣會遇時 果報 還自受
인연회우시 과보 환자수
故知 三界刑罰 縈絆殺人
고지 삼계형벌 영반살인
努力勤修 莫空過日
노력근수 막공과일
深知過患 方乃相勸行持
심지과환 방내상권행지
願 百劫千生 處處同爲法侶
원 백겁천생 처처동위법려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가 순하고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도 단정하다.
인연법이 역연하니 어찌 근심 걱정이 없으리오
고로 경에 이르기를, '가사 백천만겁이 지나도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않아서
인연이 모일 때는 과보를 되돌려 받는다' 하였다.
그러므로 알라. 삼계의 형벌은 모두 사람들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얽어맨 것이니
부지런히 노력하고 닦아서 허송세월 하지 말라
(사람들은)깊이 허물된 병을 알고서야 이에 바야흐로 수행하기를 서로 권하노니
원컨대 (그대들과) 백천다겁생에 태어나는 곳곳마다 한가지로 불법닦는 도반이 되리라.

未免三輪 何時休息
미면삼륜 하시휴식
貪戀世間 陰緣成質
탐련세간 음연성질
從生至老 一無所得
종생지로 일무소득

이에 교훈으로 새겨 이르노라.
허깨비 같은 이 몸 꿈 속의 집이여 공 가운데 나툼이로다.
지나온 길 끝 없거니 앞길 어찌 짧겠는가.
예서 낫다 제서 졌다 오르내림에 피로하기 이를데 없노라
삼계윤회 면치 못하니 어느 때에 쉬겠는가.
세간사 못내 그리매 오음연기 바탕되네
태어나 늙도록에 한자기도 소득없거늘

根本無明 因茲被惑
근본무명 인자피혹
光陰可惜 刹那不停
광음가석 찰나불측
今生空過 來世窒塞
금생공과 내세질색
從迷至迷 皆因六賊
종미지미 개인육적
六途往還 三界循環
육도왕환 삼계조복
早訪明師 親近高德
조방명사 친근고덕

근본무명 이로인해 미혹에 빠지니
광음세월 애석토다 할나도 고정됨 없으매
금생을 헛되이 보내면 내생에도 아득막막
미혹 좇다 미혹에 이를 뿐이라, 이 모두 육적 때문
육도를 돌고돌며 삼계를 기어 다님 이로다
일찍이 눈 밝은 스승찾고 고승대덕 가까이 해

乃爲銘曰,
내위명왈
幻身夢宅 空中物色
환신몽택 공중물색
前際無窮 後際曉劇
전제무궁 후제령극
出此沒彼 昇沈疲極
출차몰피 승침피극
決擇身心 去其荊棘
결택신심 거기형극
世自浮虛 衆緣豈通
세자부허 중연기필
研窮法理 以吾爲則
연궁법리 이오위칙
心境俱捐 莫記莫憶
심경구연 막기막억
大根怡然 行住寂默
육근이연 행주적묵
一心不生 萬法俱息
일심불생 만법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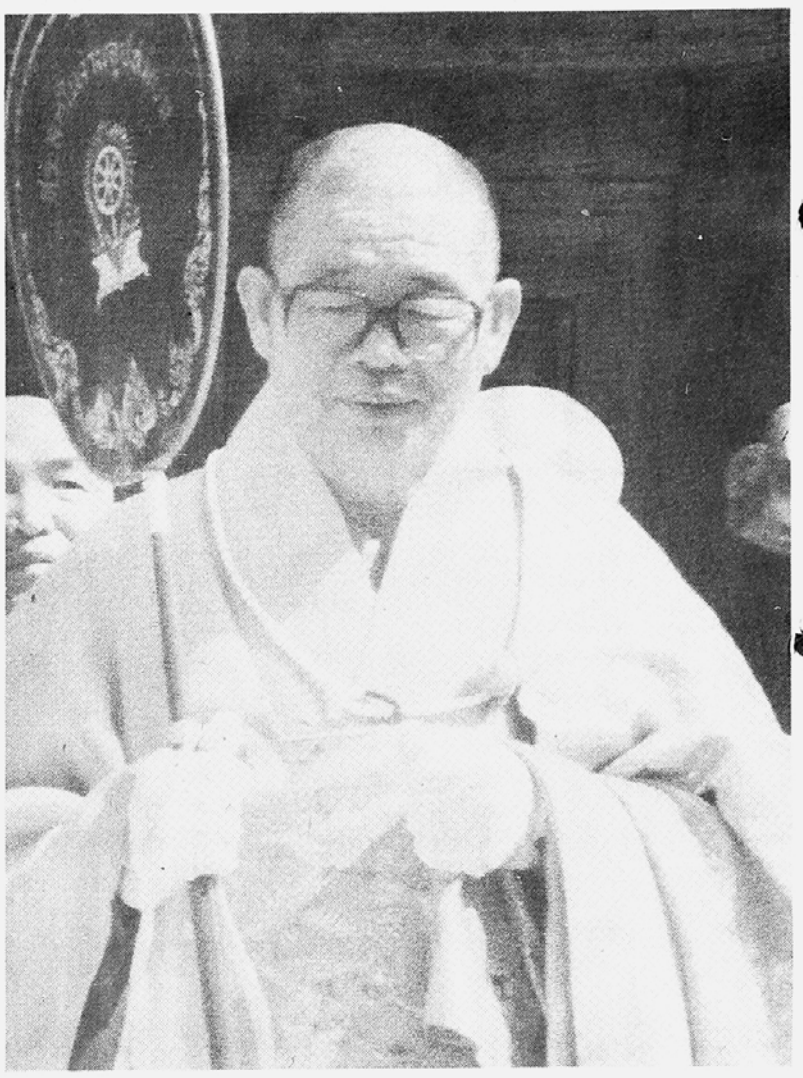
몸과 마음 다잡아서 가시 밭길 제거하라
세간이란 절로 들떠 허망한 것 갖가지 인연이 어찌 핍박 하겠는가
가르침 궁구함은 깨달음을 법칙삼네
마음·경계 함께 여워 기억·생각 하지말라
육근이 고요하면 행주좌와 적적묵묵
한생각 일지 않으매 만법이 다 쉬어 고요하리라

龍 眼

## 한 생각 일지 않으면 만법이 다 고요해

# 지상법석

# "아집 내세우고 살면



청하스님 〈영축총림 부방장〉

약력
- 1927. 10. 4 生
- 1946. 1. 15 월하스님 은사로 득도
- 조계종 제2, 3, 5, 6대 중앙종회의원
- 1988. 10. 15 통도사 영축총림 부방장 취임

天地者 萬物之逆旅요
光陰者 百代之過客이라
우주천지라 하는 것은 만물이 다 쉬어 가는 객사요
광음(세월)이라는 것은 백년 동안 쉬어가는 나그네 일 따름이라.

浮生이 若夢하니 爲歡幾何오
뜬구름과 같은 삶이 마치 꿈과 같으니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꿈과 같은 이 사바세계에서 잠시 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기 이전,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참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소식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뜻깊은 날이지만 이 소식을 미처 깨닫지 못했으면 더욱 더 용맹정진 하셔야 합니다. 결제, 해제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심할 때가 결제요, 성불할 때가 곧 해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요식으로 '해제'했다고 해서 본래면목의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 해제 따로있지 않아

세상의 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전혀 알 수 없는, 자기의 본래면목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그 경지가 향상되었는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증자득(自證自得)이라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얻어야지 무슨 물체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일찌기 알 수 없는 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과연 삼계를 초출(超出)하고 자기 본래 면목을 증득했는가를 자기 자성에게 회광반조해서 깊이 통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든지,안거를 많이 했다든지 하는 형식에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육조스님은 나무를 베어팔고, 방아를 찧어 가면서도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증득했습니다.
부처님이 마하 가섭에게 전한 이심전심(以心傳心) 교외별전(敎外別傳) 삼처전심(三處傳心) 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정진하시어 대오각성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과 삼세제불이 출현해도 이것은 어쩔 수 없고, 역대 제대 조사가 출현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과학으로나 물질문명도 이 도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 이르기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가히 얻는다고 하나 본래 얻을 것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본래 좌선이라는 것은 육조 혜능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조계문중의 이심전심에서 비롯된 것 입니다. 육조스님께서는 상이 있는 의발을 전해 받은 분이지만 스님께서는 의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에 끄달리는 중생이 형식에 집착해 과별이 생기고 그로 인해 과오가 생기므로 형식을 전하지 말고 이심전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 이후에는 의발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문에서는 설교보다는 불립문자 견성성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설교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주된 법문을 소개하면 임제조계법문인데, 임제의 할, 덕산의 30방입니다. 즉 모든 물음에 대해 알아도 30방, 몰라도 30방이고,조주의 다(茶) 즉 조주에게 법문을 청하는 모든 이에게 '차나 한잔 마시게'하여 법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써 본래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에 여하시본래면목(如何是本來面目)이닛고,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떤것이 본래의 참 모습인가"
이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유위법과 무위법이 있는데 형식 형상 모양이 있는 유위법이라 하며 세상의 법은 모두 이 유위법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유위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형식 형상이 없는 무위법으로 공부합니다. 법도 무위법이요,설법도 무설이라. 설하는 것으로 알아야 하지만 설하지 않는 것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이 몸도 본래 없는 곳에서 왔지 있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괴로움은 우리 자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도 없는 것인 바 우리는 무(無)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한 것입니다. 허공은 비어있지만 진정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라는 것은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법계선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화엄경에서 말하는 것은 법신이 대지와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비로자나

# 사 과 문

귀의 삼보하옵고
사부대중에게 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17:20분 불교방송(BBS)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 시간에 -불교방송을 음해하는 검은 세력들에게 경고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BBS 프로듀서협회 명의로 생방송한 부분에 대하여 불교방송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청취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경솔하게 방송함으로써 스님과 불자 여러분에게 큰충격과 무례함을 안겨준 점에 대해 저희 방송사는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특히 성명서 내용 중에 종단과 삼보를 훼손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지적에 겸허한 자세로 저희 방송사는 참회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불법홍포의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39년 3월 10일
불교방송 사장 합장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란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점대음식- 욕개장·대구탕 外 콩이죄·전유어·북어찜 등 이조 924-9211 과방 925-4961 소모품 제공·봉사요원 파견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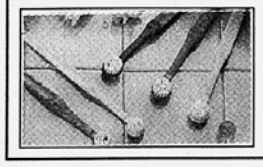
YBM 시사영어사 교육부 본부장 이 용 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42-19(역삼하이츠1빌딩 17F 765호) 전화 : (02) 558-5167~9, 565-5244 팩스 : (02) 566-1246

교육 행정직 사원모집
■ 모집인원 ○명
■ 응시자격
1) 학 력 4년제 대학 졸업자 남자 1965년 이후 출생, 병역필 면제자 봉심이 돈독한 교육학 전공자 우대
2)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서류접수마감 3월 22일~31일 3. 서류면접 4월 7일 오전 10시(고유원 사무실)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사진첨부 3×4cm) 2. 이력서 1부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4. 졸업증명서 1부 5. 자기소개서 1부
4) 문 의 처 종로구 견지동 15번지 교육원 전화 (02)732-4923~4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주)미래 케이블 TV Future's Cable Television, Inc. 중앙대리점 불교 케이블 TV 가입문의 환영 張 載 豪 서울 특별시 도봉구 창1동 662-41(대창빌딩 3층) TEL.(02)992-4777~8, (02)991-3197~8 / FAX.(02)992-4778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 (02)556-3076~7 ■팩스 : (02)556-3078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실 적
• 안암동 개운사 일주문
• 제주 보림사 4천왕(9자) 조성 및 단청
• 일본 동대관시 금룡사 청광사 단청
• 성산 일출봉 동암사 창동삼존불(4자5치) 조성 및 각단 탱화 조성 상기의 100여 사찰불사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8-8329
■호출기 012-307-8329
박 석 언 합장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름,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야 : 4242-511, 4822-511, 4252-025 FAX:477-2751 호출기 : 012-274-1727, 012-804-2025 휴대폰:011-267-2510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